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

-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

이 기 석**

Geographical Stud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Geographical Name of *East Sea**

Ki-Suk Lee**

요약 :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리학 분야가 공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 새로운 영역 개발의 필요성을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 과정을 사례로 점검하였다. 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는 UN내에 지명표준화회의와 지명전문가회의가 있으며, 동해와 같이 바다명칭만을 다루는 기구로는 국제수로기구가 각 기구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본 결의안을 수행하는데는 양자 혹은 다자 협의가 필수적이라 많은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동해표기가 지도제작사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명 외에 WTO, 해양문제, 환경과 기후, 영토와 국경 문제, FTA 등을 포함한 "지리학의 국제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지리학자가 직접 국제간에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주요어 : 지명표준화, 유엔지명표준화회의/전문가회의, 국제수로기구, 동해/일본해, 국제관계지리학

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a possible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ffairs by the discipline of geography and raises the necessity of a new field in geography that would study relations between nations. The proposed change of the name '*East Sea*' is used as a case study in promot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wo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see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One is the UN Conferences of the Standardization of the Geographical Names which works in association with the 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and the other is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These two organizations have in the past passed all the relevant resolutions pertaining to geographical names. From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 has become evident that international disputes on place names sometimes require a long process of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parties. Efforts being made to restore the historically appropriate name of '*East Sea*' as opposed to the '*Sea of Japan*' have only now begun to diffuse in many areas. It would be appropriate if geographers could develop a new area of 'Ge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deals with WTO, oceans, environment and climatic issues, FTA, as well as territories and boundaries. Furthermore, it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discourse if geographers participated mor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in international affairs.

Key Words :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DSGN/UNGEGN, IHO, *East Sea/Sea of Japan*, Ge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

1. 서론

20세기에 근대지리학에서 현대 지리학으로 발전

하면서 그 연구 분야는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 지리학자들이 다루는 주제의 다양성은 물론 인접 분야와 관련하여 새로운 분야를 넓혀왔다. 아울러

* 본 논문은 2003년 전국지리학회 전임 학회장 기조 연설임.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kisuk@plaza.snu.ac.kr.

세련된 방법론의 개발과 확고한 철학적인 기반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서로 다른 스케일에까지 연구 영역을 넓혀 왔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학문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은 개방적인 접근 방법은 대학교육현장에서 지리학을 더욱 불안하고 취약하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낳게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연구주제와 지리학자들의 관심 대상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Hollow and others, 2003). 그러나 지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지표공간에 대한 인간의 이용과 변화에 대한 이론을 밝혀 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20세기 후반 급속한 기술발달과 도시의 성장은 인간 거주지로서 지표공간의 변화를 촉진하여 왔다. 급변하는 지표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지리학자들은 변화를 주도하는 주 동인과 그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아 많은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왔다. 이들 중 일부는 많은 검증을 거쳤으며 일부는 아직도 논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수많은 변화들이 지리적인 논리보다는 이 변화를 유도하거나 규제하는 다양한 법규와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그린벨트, 공단설정, 농업지역 설정, 경제특구 등등 수많은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고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WTO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개방품목에 따라 그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에게는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또한, UN과 여러 국제기구의 각종 결의안과 규제 역시 순리적인 지역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간,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공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법규, 결의안, 조례 등에 대한 관심에 소홀하였던 점은 사실이다. 관련 법규와 규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지역사회와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기 힘든 단계에 왔다. 더군다나 관련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참여하기 전에는 도시 주변의 난개발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 힘들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왜 지명 표준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된다.

최근 우리 학계는 물론 정부에서 국제적으로 시정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해지리명칭 되찾기’ 운동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관련 결의안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동해명칭 표준화를 위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지리학연구와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리학자들이 국제적 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분야를 새로운 지리학의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2. 지명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기구와 결의안

국제적으로 바다 명칭을 포함하여 일반 지리명칭에 대한 표준화 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7개 전문가 기구 중에 하나로 1965년 7월 15일에 설치된 유엔지명표준화회의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 와 1968년 5월 31일에 설치된 유엔지명전문가회의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가 1959년과 1968년 ECOSOC 결의안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회의는 매 2년에 한번씩, 표준화회의는 매 5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으며, 1967년 처음 Geneva에서 열린 이래 최근에는 제8차 UN지명표준화회의가 2002년 8월 독일 Berlin에서 개최되었으며 차기 회의는 아직 그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UN지명전문가회의는 제21차 회의가 2002년 Berlin에서 표준화회의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제22차 회의가 2004년 4월 20-29일까지 New York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 두 기구는 각국에서 표준화된 지명이 국제적으로 올바르게 통용되도록 하여 국가 간에 원활한 통신은 물론 사회경제적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정부가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옵서버를 파견한 적이 없었으며, 1991년 유엔가입이후에는 두 회의에 국가 대표와 전문가를 파견하여 왔다.

바다명칭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1919년 만들어진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IHO)가 있다. 이 기구에서 1929년 국제적으로 처음 동해 명칭을 포함하여 전 세계 해양과 바다의 이름을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표준화하여 Special Publication 23 "Limits of Oceans and Seas"를 출간하였다. 이후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바다 이름을 통일된 표준화 지침서로서 모든 국가의 해도와 일반 지도제작에 기본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은 1936년에 제2판이 그리고 1953년에 제3판 수정판이 출간된 이래 제4판 출간이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일본해(Japan Sea)"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은 1923년 이후 IHO 관련회의에 참가한 일본 대표에 의해 관련 국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해" 이름을 등록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식민지 하에서 우리 동해 명칭이 "일본해"로 국제적 표준화가 된 이후 아직껏 시정되지 않은 채 쓰이고 있다. 이로써 우리 역사에서 지난 2000년 사용되어온 동해명칭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일본해'로 표준화함으로써 세계지도상에서 없어지게 되었다. 그간, 표준화된 바다 명칭을 수록한 책인 'Limits of Oceans and Seas'은 1953년 제3판이 발간된 뒤에 현재 제4판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해양과 바다의 이름은 IHO에서 다루고 있지만 UN의 표준화회의와 전문가회의에서도 그 원칙에 대한 논의를 계속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력은 모두가 기존하는 관련 국제기구의 결의안에 따르고 있다. IHO는 1974년 3월 13일 두 국가 이상이 하나의 지리적 대상(geographical feature)을 공유할 때 하나의 공통 명칭이 합의되지 않을 시는 개개 국가에서 표준화된 지리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기술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킨바 있다(IHO A 4.2.6 참조). UN 역시 1977년 Athens에서 개최된 제3차 UNCISGNG회의에서 통과한 Resolution III/20은 IHO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UN Resolution III/20 참조).

< IHO Technical Resolution A.4.2.6 >

A 4.2.6. - It is recommended that where two or more countries share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such as, for example, a bay, a strait, channel or archipelago) under a different name from, they should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on fixing a single name for the feature

concerned. If they have different official languages and cannot agree on a common nam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the name forms of each of the languages in question should be accepted for charts and publications unless technical reasons prevent this practice on small scale charts. e.g.English Channel/La Manche(Kerr, 1997, 부록 참조)

< UN CSGN Resolution III-20 >

◆ III-20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1977 Athens)

The Conference

Consider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names of geographical features that are 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or are divided among two or more countries,

1. Recommends that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under different names should endeavour, as far as possible, to reach agreement on fixing a single name for the feature concerned;
2. Further recommends that when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do not succeed in agreeing on a common name, it should be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 that the name used by each of the countries concerned will be accepted. A policy of accepting only one or some of such names while excluding the rest would be inconsistent in principle as well as inexpedient in practice. Only technical reasons may sometimes make it necessary, especially in the case of small-scale maps, to dispense with the use of certain names belonging to one language or another.

(Lee and Moller, 2002, 81-82 참조)

3. "동해"명칭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

1)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노력

우리 정부는 UN에 가입한 다음해 1992년 제6차 UN지명표준화회의에 처음으로 일본해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동해로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어 1994년과 1996년 New York과

Geneva에서 열린 UN지명전문가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한 바 있다.

1997년에는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15차 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IHC)에서 처음으로 IHO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1998년 제7차 UNCSGN, 2000년 UNGEGN, 2002년 Berlin에서 개최된 제8차 UNCSGN 그리고 2002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16차 IHC에도 재차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차원에서 동해명칭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유엔에 가입이후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 이의 시정을 처음 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는 결의안 III-20(1997)에 준하여 관련 당사국간의 협의를 중용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 후 1994년 뉴욕과 199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6 및 17차 유엔지명전문가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회원국에 널리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1995년에는 건교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1:1,000,00 축척의 국제규격에 따른 6장으로 된 한국지도(The New International Map of the World)를 회원국에 공식적으로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한바 있다. 아울러 회원국에게는 민간회사 성지문화사가 본회의를 위하여 제작한 1:2,500,000 축척의 한국지도 영문판(Map of Korea)이 함께 배포되었다.

유엔을 통한 동해 되찾기 운동은 계속되었다. 특히 지난 1998년 1월 13일-23일 까지 미국 New York UN 본부에서 개최된 제7차 UN 지명표준화회의에서는 그간 사단법인 동해연구회(1994년 11월 설립)에서 개최한 동해관련 국제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해 명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존 유엔 결의안 테두리 내에서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전 회원 국가에게 폭 넓게 인식시켰다(이기석, 1998).

이어 2000년 1월 17-28일 까지 New York UN에서는 제20차 UN지명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동해명칭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모두 3개의 Working Paper를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WP-24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는 우리 정부와 South Africa 정부가 함께 제출한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그간에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결의안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평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서 유엔에서 우리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WP-96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III/20 on Geographical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을 제출하여 UN에서 법률적으로 적절성에 대한 요구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그간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에서는 1994년이래 국제수로사무국(IHB)에 ‘일본해’ 표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아울러 IHO회원국에도 동해표기를 사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97년에는 제15차 IHC회의가 모나코 IHO본부에서 4월 14일 - 2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정부는 “해양과 바다의 한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책자에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1974년 채택된 지명표준 결의안 A 4.2.6에 따라 동해(East Sea)표기를 포함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 규정은 유엔이 1972년 London에서 개최된 제2차 지명표준화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II/25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유엔은 1977년 Athens에서 개최된 제3차 지명표준화회의에서 수정된 III/20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지난 2002년 4월에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16차 IHO 총회에서 우리정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새로 발간 예정인 <해양의 경계> 제4판에서 기술 결의에 따라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본회의에서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알제리 등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본회에 대비하여 <사>동해연구회에서는 <East Sea in World Maps>를 제작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하였다. 특히 본회에는 북한대표가 참가하여 동해표기관련 토론에서 우리 정부와 같은 요구를 함으로서 오랜만에 공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미국 지명위원회(The US Board on Geographical Names)가 처음으로 동해 명칭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11일과 18일에 Washington D.C.에 한국정부대표를 초청하였다. 1997년에는 비공식적으로 DC에서 만나 1998년 UN회의 관련하여 자문을 요구 한 적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게 된 것은 이 초청이 처음이었다. 모임은 국회도서관에서 있으며, 그간의 동해찾기운동의 경과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 요청에 대하여 2000년 봄에 우리 국방부에 전달된 요지에 따르면 크게 진전은 없었다. 미국지명위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요 세계지도책들의 경향에 따라 한 동안 현재 표기를 유지 할 것이지만 미연방정부외의 민간분야에서 표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율에 맡기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홍보와 학술 활동을 통한 국제표준화 노력

우리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국내외를 통하여 동해표기운동을 전개하여왔다. 정부차원에서는 국립지리원으로 하여금 'Korea and Vicinity' (1:3,000,000 축척) 지도를 1997년 제작하여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을 통하여 전 세계 지도 제작자, 언론기관, 주요도서관과 대학교, 연구기관에 배포하여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벌여 왔다. 1998년에는 이 지도 하단에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여 출간하였다.

The "East Sea" is referred to as the "Sea of Japan" in Japan. However, strong historical precedents lend credence to the "East Sea" as the more appropriate name. It is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is sea should be identified as the "East Sea", a neutral name meaning the sea area located east of the Eurasian continent, a title often used in historical documents and maps for the reg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century.

특히,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 동해연구회(회장 김진현)는 해외홍보원의 협조 하에 1998년부터는 미국 지리학계 연차대회에서 참여하는 모든 지리학자들에게 이 지도를 배포하였다. 1998년은 Indianapolis에서 개최된 미국지리교육학회 (NCGE)에, 1999년에는 Hawaii, 2000년에는 Pittsburgh, 2001년에는 New York에서 개최된 미국 지리학학회 (AAG)에서 상가지도를 배포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6-10일 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지도학회(The 20th 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에서 참가 학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밖에 서울대 지리교육과는 해외홍보원의 협조 하

에 "Historical Precedent of East Sea" 라는 팸플릿을 제작하여 지도와 함께 유엔지명회의와 기타 관련기관에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였다.

동해명칭 되찾기 운동을 위한 체계적인 학술활동은 외무부 산하에 설립된 사단법인 동해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동해연구회는 1994년 이래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1995년 이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동해 지명에 대한 국제 학술 세미나에는 유엔지명전문가를 비롯하여 IHO 관계자,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학자를 초청하여 바다명칭에 대한 일반론으로부터 문제지역의 표기 역사, 그리고 동해와 일본해의 기원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문 발표를 하여 왔다. 그간 모두 9회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하여 17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 8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세계지리학회(The 20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ference: IGC)에서는 동해명칭에 대한 특별 분과를 설치하여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와 공동으로 제6회 동해명칭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바다의 명칭과 관련된 학술회의로는 유일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밖에 국내의 학자들의 활동이 계속되어 왔다. 미국, 일본, 프랑스, 남아프리카에서 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관련 논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것은 2000년에 개최된 세계지리학회대회를 기념하여 (주)성지문화사가 영문 한국지도책(Atlas of Korea)을 펴냈다. 국내 최초의 영문판 지도책으로 동해 표기는 물론 한국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2년 7월 24-25일에는 제8회 동해명칭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태평양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동해연구회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처음 행사로 모두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본회에는 북한 과학원 지리연구소 주수길 소장을 비롯하여 모두 4인이 참가하였으며,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 사공준 교수와 조선사회과학원 김화효 원장이 참석하였다. 더군다나, 본회의 말미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제안된 동해 표기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UN

과 IHO에 보냈다.

<2002년 Vladivostok 결의문>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the Seas:

Noting: The desirability of having a single name for the sea AREA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 in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harmony and economic cooperation of the North East Asian Region.

Further noting: The long historical usage of various names for the relevant area.

Further noting: It is apparent that coastal states can not reach Agreement on a single name based on historical usage, geographic orientation, or national emotion, and a single country name.

Proposes: That the matter should be referred to the IHO and the 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and reference be made to the U.N. Resolution advocating, in the lack of Agreement of the use of single name, both names to be used simultaneously,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

Vladivostok, Russia
July 25, 2002

2002년 8월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는 우리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SP-23 제4판 'Names and Limits of Oceans Seas'의 개정판 안(draft)을 회원국가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회람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찬반투표를 중단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일본해' 명칭을 빼는 것은 물론 관련 페이지의 지도부분도 백지로 어떤 지명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바다의 명칭은 앞으로 협의 된 연후에 게재한다는 원칙('Name To Be Agreed')으로 제시되었다. 이 IHB의 제안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그간 표준화되어 왔던 '일본해'의 정당성이 거부되었으며 실제적으로 기존하는 일본해의 현상 'status quo'의 변화 계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더군다나 2002년 8월 개최된 Berlin UN회의에서도 UNCSGN의 관련 Committee Chair 역시 본회의 요약에서 합의되지 않는 한 관련 국가들의 바다명

칭을 쓰도록 국제사회에서 강요하지 말라고 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잠시간의 공백기에 접어들고 있다 (제8차 UNCSGN Chair의 요약 참조).

< UN Chair Statement in Berlin UNCSGN, September 2002 >

206. The question of the name of this sea has been raised in connection with IHO SP-23 (Limits of Oceans and Seas) which was in the process of being updated.

207. -----

208. The Committee encouraged the three countries to continue their efforts to find a solution acceptable to all of them,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resolutions, or else to agree to differ, and to report the outcome of their discussions to the next Conference, The Chairman stated in his summary that individual countries could not impose specific name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tandardization could be promoted only when a consensus existed.

또한, 이 두 국제기구에 의한 처리 상태로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는 공식적인 명칭이 유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의 관련 결의안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시행에는 국제간의 다자간 협의에 의한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리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는 특히 바다명칭에 관련해서는 두 국제기구의 상호 협의 하에 최종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3년 10월 15~17일 제9회 동해명칭 국제명칭국제세미나를 중국상해복단(Fudan)대학 한국연구중심과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와 공동개최되었다. 본회의에도 북한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4. 최근 동해 표기의 국제적 경향

1992년 이후 정부, 학계, 민간단체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세계지도상에서 서서히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표기의 변화는 기존하는

국제기구의 결의안을 근거로 지도제작자들의 자의적 해석과 회사방침에 따라 여러 가지 표기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기존 표기에 괄호 열고 동해(East Sea)만을 추가한 것과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표기한 것, 그리고 동해를 먼저 표기하고 괄호 속에 일본해를 표기한 것 그리고 최근에 East Sea 만을 단독 표기한 것, 그리고 표기와 관련된 국가간의 분쟁이 끝날 때 까지 표기를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미국 지도제작회사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Rand McNally 지도회사의 1997년 발간된 지도, Premier World Atlas(Rand McNally and Company, 28-31)는 SEA OF JAPAN(EAST SEA)으로 표기하였으며 1999년 판 Atlas of the World: Millenium Edition(36-41)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비슷한 표기로는 WWW.ENCARTA.COM-MICROSOFT, 2000에 실린 The Most Comprehensive World Atlas Ever Created에는 Sea of Japan (East Sea)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1998년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Global Resources에서 발간한 Humanitarian Response Planning Map에는 Sea of Japan(East Sea)로 적고 있다. 반면에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OCHA)에서 제작한 1998년 북한 주요도로지도에서(www.reliefweb.int/map.nsf/wLatestMaps) "Sea of

Japan(Tonghae)"로 표기하고 있다. 영문으로 East Sea 대신 Tonghae(동해)라고 표기하는 것은 당해 국가에서 표준화하여 부르는 대로 로마자 표기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괄호 속에 동해 표기를 하는 것은 실제 병기 원칙에 어긋나지만 다음 단계로 옮겨가지 직전 단계로 고려하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들은 아직 완전한 병기 형태가 아니고 일본해 우선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002년 10월 24일자 The Economist 잡지는 삽입지도(inset map)에서 Sea of Japan(East Sea)로 표기를 바꾸었다.

1998년판 Britanica CD-ROM에는 한국 중심지도에 'EAST SEA(SEA OF JAPAN)'로, 일본 중심지도에는 'SEA OF JAPAN(EAST SEA)'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각 국가의 해양주권의 영향이 미치는 해역을 고려하여 붙여진 것으로 감안 할 수 있다. 현재 New York Times도 이 방식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으며 Merridiam-Webster Atlas 2001년의 남북한 지도에도 동일한 표기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1부터 National Geographic Society(NGS)에서 발간하는 모든 지도에 한국 중심지도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세계지도에는 Sea of Japan(East Sea)로 그 표기 방법을 바꾸었다. NGS의 이러한 표기 전환은 우리의 요구가 4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 성취된 것이다.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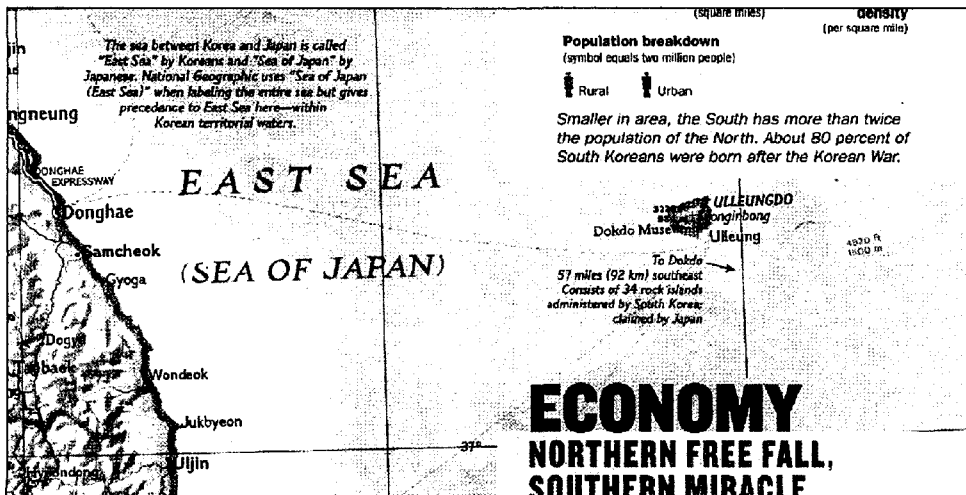


그림 1. NGS회사의 2003년 The Two Koreas 지도에 동해표기

1996년에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는 미정부의 지명 위(USBGN)의 원칙에 따라 수정 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바 있었다. 그 후 2000년 1월 국내에서 한글판 “National Geographic” 월간지를 출간하기 앞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모든 지도에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사용할 방침을 표명한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2001년에 와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03년 7월 발간한 The Two Koreas 지도에서는 위에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동일한 원칙을 영국에서 출간된 The Times Atlas of the World 와 Australia에 본사를 둔 Lonely Planet Publication 의 South Korea, North Korea, 그리고 Japan 지도에 적용하고 있다(www.lonelyplanet.com).

그러나 동해(East Sea) 중심의 표기를 시작한 지도도 최근에 급격히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도제작자들이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예로는 1997년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발간한 Demograph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rop Use Intensity 지도에는 East Sea로 표기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에서 발간하는 1999년 Bulletin 49(2) 135쪽 Orographic Map of Korea(E. Dege)에서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표기하였고, 미국에서 발간된 H. J. de Blij and Peter O. Muller, 2000, Geography: Realms, Regions, and Concepts (John Wiley & Sons Inc.)과 H. J. de Blij and Alexander B. Murphy, 2003, Hum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Inc.) 책 속에 한국과 일본 관련 모든 지도에서 East Sea (Sea of Japan)으로 바꾸었다(그림 2 참조). 원래 이 책의 1997년 8차 출판본에는 모두 Sea of Japan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1998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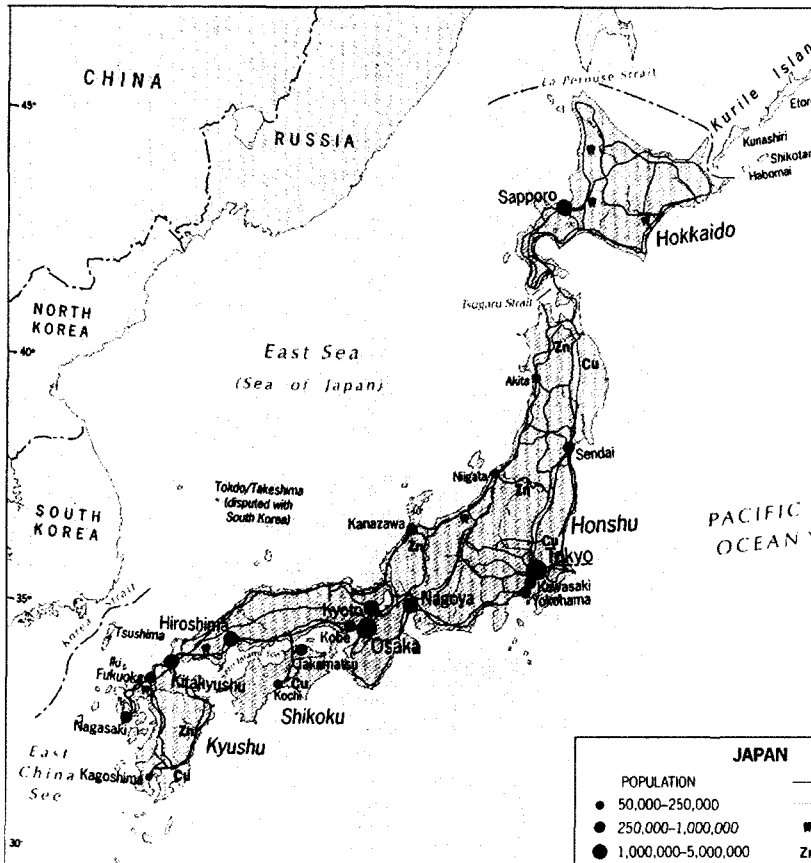


그림 2. de Blij와 Muller의 Regional Geography(2002년) 책의 지도(Figure 9-21)

최근에는 *East Sea* 단독표기의 지도가 발간되고 있다. Swiss의 항공사인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의 항공기 기내 잡지(2002년 9월) 안내 지도에는 *East Sea*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상의 사례는 변화하는 세계지도의 그 일부분으로서 동해명칭 표기는 이제 전환기에 왔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지도상의 표기는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본해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 단체의 홍보활동에 따라 동해표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실감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해표기의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국제적인 언론기관이나 지도제작자들이 서서히 받아드리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용과정에서 두 지리명칭의 표기가 기술적으로 공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두 국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관계를 고려하여 바다 명칭의 표기를 하지 않으려는 예외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기관인 CNN은 2001년 1월부터 TV화면에 소개하는 한국과 일본 지도에서

중전에 “Sea of Japan” 표기를 포기하고 바다이름 없는 지도를 내보내고 있다. 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일차적으로 일본해 표기에 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라 본다. 또 다른 예의 하나는 당사국인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해의 지명 기원연구의 중심지로 알려진 Niigata에는 財團法人 環日本海經濟研究所(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가 있다. 실제 이 연구소의 영문 이름으로는 동북아경제연구소이지만 환일본해경제연구소 명칭을 쓰고 있다. 최근에 일본해 명칭과 관련하여 양국간에 갈등이 표면화되면서부터는 본 연구소 소개책자 속에 실은 동북아지도상에 바다 명칭을 적지 않은 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다음 몇 가지 지도들이 바다이름을 의도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한 시기에 온 것 같다. 영국 수로국에서 2001년 발간한 Catalogue of ADMIRALTY CHARTS AND PUBLICATION의 Part 2 K1 NE China and West Korea 그리고 Part 2 L의 Russia(Pacific Coast), Eastern Korea, Japan 도폭에서 주변 바다이름은 모두 표기하면서 동해 이름은 표기하고 있지 않다. 해도는 국제적으로 해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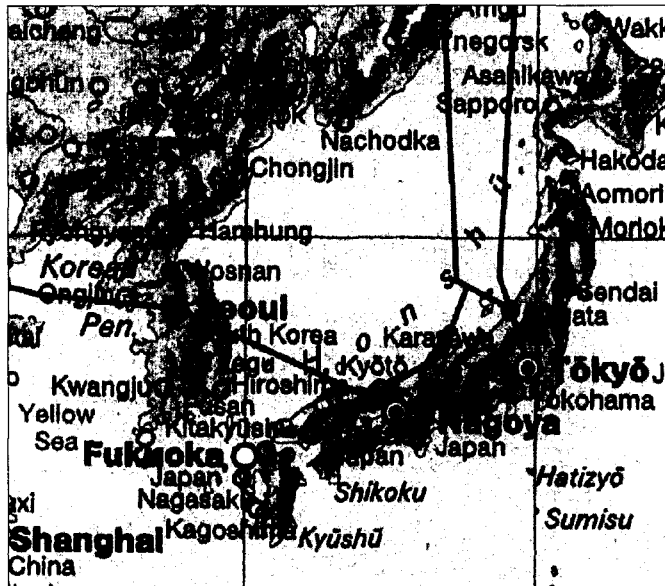


그림 4. Lufthansa Magazin(2002년 7/8월) 기내 지도

전을 위하여 해명표기가 필수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 변화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일관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관심에 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과 유엔산하 기관에서 발간하는 최근 지도들이 이 부류에 해당된다. 유엔산하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Tumen Secretariat, Beijing은 1991년 이래 주변국가의 협력 하에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2000년에 이 프로젝트지역에 해당되는 지도 3종을 중국에서 제작하여 2001년 6월 처음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3종의 지도 모두에 바다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발간하였다. 처음 지도는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and Northeast Asia(축척 1: 9,000,000) 이고, 두 번째 지도는 Economic Centers of Northeast Asia(축척 1:3,000,000), 세 번째는 Economic Map of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축척 1: 500,000)로 모두 동해이외의 주변 바다이름은 표기하면서 문제지역의 바다명칭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이 변화는 2001년 3월 유엔 내에 있는 홍보국 지도분과(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Cartographic Section)에서 제작한 북한지도(Map No.4163)에서 바다이름을 표기치 않고 발간하였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항공사인 Lufthansa 기내에 제공하는 Lufthansa Magazin(7/8 2002, p.79)에 1: 59,000,000 지도)세계지도상에 동해해역에만 바다이름 없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것은 분명히 바다명칭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 평가된다.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엔이 기존 결의에 따라 병기하지 않고 바다명칭을 삭제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바다 이름 없는 안내 지도를 제공하는 것도 앞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5. “국제관계 지리학” 영역의 개척 필요

지난 2000년 우리는 제29차 세계지리학 대회(IGC)를 서울에 유치하여 한국지리학 발전의 편모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임무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글로벌시대에 지리학을 통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다. 특히, 다자국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는 더욱 많은 난관이 우리를 가로 막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우리 전문가들은 이를 다룰 수 있는 학문적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동해표기의 국제표준화와 같이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에 대한 국제법상에 적용될 결의안 연구는 국제법 전문가와 지리학자에 의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리전문가가 국제기구의 결의안 평가와 수행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주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토위상을 유지하고 영토와 경계를 지키고 바다와 해협, 해저 지형에 대한 명명, 경계지역의 산과 강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확립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리학 연구에서 국제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그 전문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우선 이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강좌를 대학에서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자국 협상에 지리학 배경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임하게 함으로서 지역 간의 갈등해소 뿐만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지난 3월 13-19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지리학회(AAG)는 학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비판은 물론 지리학의 미래 방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다음 100년을 내다보면서 기획한 “Worldminds” 책은 학계, 정부, 비정부기구, 사업계의 필자를 초청하여 지리학이 앞으로 이 사회와 세계에 보상 할 수 있는 100개 항에 대한 장을 구성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중 11개 항이 “Mixing Geography with Politics” 에 할애하였다(Jannelle and others, 2003). 이 부분은 전통적인 정치 지리학의 범주를 넘어서 지리학이 다음 한 세기 동안 국제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는 부분으로 국제관계 지리학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21세기는 국경을 초월한 활동에 의해 국가 미래

가 결정된다고 예견하고 있다. 지리학 연구 역사의 초점을 맞추어 새 시대에 적응하는 역량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는 동해 표기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UN의 지명관계회의, IHO 총회, 한일 양자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최근에는 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련하여 지리전문가가 많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주 1). 그러나 이제부터 더욱 많은 지리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WTO, 해양문제, 기후협약, 환경문제, 국제지도학관계, 농산물 협상, FTA등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진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 보고에 따르면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분담금에 비하여 한국의 전문가 진출이 '과소 진출(under-precedent)'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주 2). 아마도 이와 관련 국제기구분야에 지리 국제관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진출시켜야 될 것이다.

국토와 세계의 공간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동인은 인간 활동 그 자체 보다는 그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내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고 조직화되리라고 본다. 보다 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지리학 연구의 영역을 우리 사회와 세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초 연구에만 안주 하지 말고 소위 "국제관계 지리학"과 같은 분야를 개척하여 우리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註

- 1) 1994년 이후 UN지명전문가 회의와 UN지명표준화회의, 그리고 IHC회의에 이기석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하여 왔으며, 현재는 UNGEGN의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의 convener를 맡고 있다. UNESCO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인 동국대 이혜은교수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 2) 김승호 전모로코 대사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총 38개 국제기구에서 231명의 한국전문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2003년 한국 정규 유엔분담금 비중은 1.851%로 191 회원국 중에서 10번째로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한다(2004년 3월 8일자 발언대 "국제기구 진출 인력을 늘리자" 참조).

文 獻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통용을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33(4), 541-556.

Holloway, S. L., Rice, S. P. and Gill Valentine, eds., 2003, *Key Concepts in Geography*, Sage Publication, London.

Janelle, D. G., Warf, B. and Hansen, K., eds. 2004, *Worldminds: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100 Problems*, Commemorati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904-2004, *Celebrating Geography - the Next 100 Years*,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Kerr, A. 1997,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nd its Involvement with Geographical Place Nam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the East Sea*, Seoul, 11-12 June.

Lee, Ki-Suk, 1999, "The Historical Precedent for the Geographical Name of 'East Sea(Sea of Japan)'," *The Virginia Geographer, Journal of the Virginia Geographical Society*, Volume 30, Nos. 1 and 2, 13-28.

Lee, Ki-Suk, Kim Shin, and Soh Jung-Chul, 2002, *East Sea in World Maps*, The Society for the East Sea, Seoul, Korea, 126p.

Lee, Ki-Suk and L. A. Moller, eds., 2002, *Statutes, Rules of Procedure and Resolutions on Geographical Names*,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Seoul.

최초투고일 04. 03. 23
 최종접수일 04. 03. 24